

아프리카 에이즈관련기관 탐방기 (2)

이토록 순박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지...



유미혜 | 구세군 사관
 1985년 미국 뉴욕 구세군 사관학교 졸업
 1991-1994년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구세군 한인 영문 담임 목회
 1998년- 현재 구세군 에이즈 예방사업단 담당관

본 탐방기는 2번에 걸쳐 연재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치카카타에서 에이즈 관리에 대한 전문 연수과정을 이수한 우리 일행은 다시 잠비아 북부에 위치한 NDOLA라는 지역으로 이동했다. 구리광산으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지역이 또한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UN에서 이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감염률이 높은 지역의 하나로 발표하게 되면서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에이즈의 확산이 이토록 확대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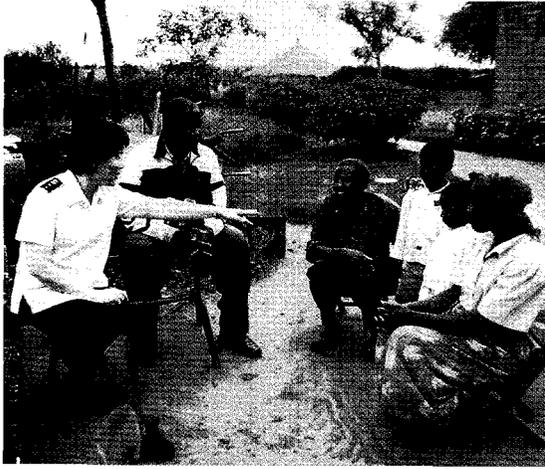
그중 하나는 물론 빈곤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위생, 병원의 부족 등이라 보여졌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은 일부 다처제, 그리고 성과 연관된 문화적 요인 때문이었고 또한 인접이 에이즈 문제가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는 에이즈를 부정하고 무시하려는 지역사회의 태도가 바로 큰 요인이었다고 보여졌다.

한 가족의 일원이 에이즈로 사망할 지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귀신들려 죽은 것처럼 생각하려는 태도 그것은 바로 에이즈가 가져오는 사회적 수치 불 당하지 않으려는 데서 기인한 것이었고, 또 사회에서 에이즈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기도 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성문화가 지금처럼 변화해가고 또한

사람들이 에이즈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리고 HIV 감염인에 대한 회피나 수용치 않으려는 자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도 어쩌면 아프리카의 아픔을 겪게 되지는 않을 까라는 우려의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NDOLA에서 우리는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HIV검사를 받아보게 할 수 있는 클리닉을 건설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했다. 구세군의 프로젝트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HIV검사를 받는 것을 꺼려하는 지역사회주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또 검사받는다는 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고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 건강 프로그램과 검사 전 상담, 검사 후 상담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HIV감염인들의 수익증진 사업과 재활을 위한 기술 훈련 등을 함께 병행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방문에 이어 우리는 다시 지역사회 내의 감염인 가정을 두 곳 방문하였다.

몇 집 걸러 한집씩 에이즈 환자를 가지고 있는 마을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타국에서 온 동양인을 향해 밝게 웃으며 순박한 모습으로 손을 흔들어 주는 아프리카인들의 모습에 콧등이 찡해지고 있었다.



마을사람들과 에이즈에 관해 담소하는 모습.



잠비아 차칸카타 - 이 마을에만 에이즈 교이가 800여명 있다.

19세의 감염인 소녀는 숨쉬기가 곤란하고 근육이 많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공부를 했으면 하는데... 가슴이 아려왔다.

40세의 여성은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머리를 빗고 맞이하겠노라고 굳이 몸을 일으키는 모습에 눈가가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그 집을 나오면서 나는 그 여성의 자녀들 두 명이 기둥에 기대어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우리에게 그래도 웃음으로 배웅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다.

우리의 마지막 방문지는 바로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의 빈민가에 위치한 프로젝트였다. 이곳에서도 역시 에이즈 교이 및 일반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학교를 구세군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학생들 속에는 HIV감염 아동이 자유롭게 섞여있었고 이들을 다른 아동들과 똑같이 대하면서 교육하는 것을 보았다.

그뿐 아니라 HIV감염인들이나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감염사실에 관계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술훈련을 받고 또한 건강을 위한 영양식 만들기 등의 교육을 위해 모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HIV감염인

들의 수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나 기타 공적 기관이 재정적으로 지지해 줄 수 없는 빈곤에 처한 감염인들과 그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스스로 경제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과 예방만이 아프리카를 구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프로젝트 단당의 말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조국 한국을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그토록 순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아프리카 대륙이 왜 그처럼 빈곤과 질병에 처참하게 황폐되어 가는 자를, 그리고 죄 없는 아이들이 왜 부모를 잃어버린 채 기아와 가난에 허덕여야 하는지, 왜 갓 태어난 아기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뛰어 놀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죽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

제발,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주기를...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좀더 많은 예산으로 이런 예방운동을 지원해 주기를... 그리고 이미 감염된 사람들은 우리가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